

불교음악아카데미는 8월 21일 지도사용 반주음원 및 교재를 출시했다. 이날 출범한 '동국대 힐링코러스 합창단'이 <지도사용 교재>에 따라 축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쉽게 가르치고 부르는' 찬불가 음원·교재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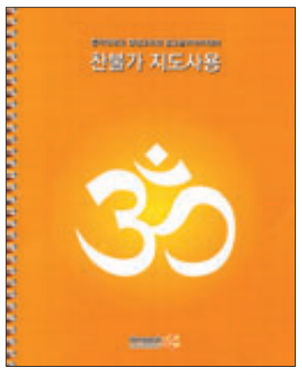
불교음악아카데미, 지도사용 반주음원 및 교재 최초 발간

법당 한편에 놓인 피아노. 과거에는 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 의식곡을 부르는 풍경이 익숙했지만, 불교 음악인이 절실히 부족해진 요즘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피아노를 찾는 것이 더 쉽다. 소규모 사찰 중에서는 1년에 한 번 뿐인 부처님 오신날에도 반주자를 구하지 못해 무반주로 봉축법요식을 올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 가운데 일선 사찰에서 찬불가 지도를 하고 싶어도 피아노 반주자를 대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대표 강형진)가 찬불가 반주음원과 교재를 내놨다.

불교음악아카데미는 8월 21일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계 최초 지도사용 반주음원 및 교재를 출시했다. 이는 반주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찬불가 지도 또는 배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단체 및 사찰들을 위한 것으로, 찬불가의 보급과 대중화가 주목적이다. 특히 음악 전공자가 아닌 일반 불자들을 위해 음역대를 조정, 편곡해 출시된 첫 음원 및 교재여서 더욱 주목된다.

불교음악아카데미는 "대부분의 기존 찬불합창곡집은 성악가들의 음역대에 맞춰 발간됐다. 이에 본 단체는 신도들이 부르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편곡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불교음악아카데미 4기 교육생 전동휘 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평소 음악에 애착이 컸던 전 씨는 불교에 입문한 후에도 찬불가에 깊이 매료돼 일선 사찰에서 찬불가를 지도하고 싶었지만 반주시설이 없었다는 것. 이에 전 씨는 직접 녹음한 음원을 신도들에게 들려주며 찬불가 음성공양에 매진했다.



불교음악아카데미가 8월 21일 출시한 불교계 최초 지도사용 찬불가 교재.

불교음악아카데미는 이를 이어 받아 일반 불자 지도를 위한 음원 및 교재 발간에 착수했다. 1기부터 7기까지 전 교육생이 십시일반 모연에 동참했고, 음원 녹음 및 편곡도 독자적으로 완성했다. 불교음악아카데미는 "모든 과정에 교수들과 출재가를 막론한 불자 동문들이 동참했다. 그야말로 '불교 음악 공동체 마을'을 형성한 것"이라면서 "이번 출시로 불교음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악 전공자 아닌 일반 불자 위해
음역대 조정·편곡한 첫 시도 주목
전 교육생 음성공양 십시일반 동참
"향후 2·3권 시리즈 발간 계획도"

음원과 교재에는 '삼귀의' '보현행원' '사홍서원' 등 의식곡 6곡과 '고운 님 잘 가소서' '붓다의 메아리'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연등'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20곡이 수록됐다. 곡 선정은 불교음악아카데미 교수 및 회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가장 인기 있는 곡을 1위부터 20위까지 선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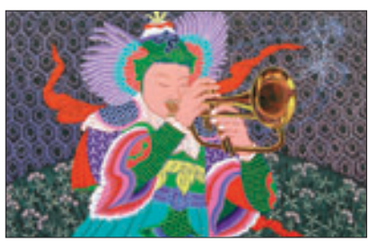
반주음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DS audio'를 다운로드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불교음악아카데미 교육생 및 졸업생들에게만 ID와 비밀번호가 공개된다. 이번 교재는 총 500권이 제작됐으며, 악보에는 기타 코드도 함께 실었다. 향후 수록곡수를 늘려 2권, 3권 등을 연이어 출간할 예정이다.

강형진 대표는 "재즈면 어떻고 클래식이면 어떤가.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음원 및 교재 발간도 일반 불자들을 위해 기획했다. 따라 부르기 쉽고 편안한 찬불가를 보급함으로써 불교음악이 다시 한 번 부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음악아카데미는 이날 '동국대 힐링코러스 합창단'을 출범했다. 교육생 및 졸업생 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호스피스병원·복지관·군부대 등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사무량심의 悲, 소리와 실로 표현하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이김천·달분 작가 초대전
'사무량심-비(悲) karunā' 9월 14일까지



이김천 作, 꽃이핀다, 41x61, 무명천·실, 2016



달분 作, 붓다의 손, 192x132, 한지에 아크릴 채색, 2008

불보살의 4가지 자비심 자(慈)·비(悲)·희(喜)·사(捨)를 뜻하는 사무량심 중 '비'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이김천·달분 작가 초대전 '사무량심-비(悲) karunā'를 9월 14일까지 갤러리 까루나에서 개최한다.

이김천 작가는 '소리를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다. 1995년 첫 개인전 이후 지난해까지 30여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단체전 100여회 및 아트페어 기획전 50여회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달분 작가는 직선으로 곡선을 그리는 '실그림 작가'로 알려져 있다. '붓다의 손' 등 작품이 대표적이며, 2016년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불교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번 전시의 주관을 맡은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앞으로 4번에 걸쳐 자(慈)·비(悲)·희(喜)·사(捨)를 주제로 릴레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이번 전시는 '우리집 부처님'이란 큰 흐름으로 작가들이 가정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작품을 작업하는 것"이라면서 "재가자들은 집에서도 각자 생각에 맞는 불교미술작품을 소장해 신행 및 수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 까루나는 비로자나국제선원 1층에 위치한다. 지난 7월 홍제동에 새 도량을 건립한 비로자나국제선원은 1층에 갤러리와 카페를 열어 문화포교를 펼치고 있다.

초대리셉션은 8월 30일 오후 6시 열린다. 이김천 작가의 음악과 달분 작가의 시낭송이 어우러진 시간으로 마련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장경문화축전 D-50, 620여 년 전 이운행렬 재현

해인사·합천군,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50일 앞두고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을 재현한다. 합천군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8월 31일 오후 5~8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및 동성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운행렬 재현행사는 1398년 5월경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하고 있던 팔만대장경을 가야산 해인사로 옮겨온 당시 장엄한 행적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대장경 1000년을 기념해 서울 인사동에서 처음 시작돼 2013년 부산 남포동에서 2번째 축전이 열린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취타대를 선두로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한 60여 스님들이 향로, 인로왕번, 오방불번 등을 들고 앞장서며 500여 참가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지고 뒤를 따른다.

한편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10월 20일~11월 15일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 및 해인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아름 기자

다문화 함께하는 보덕사 호수음악제

9월 10일 오후 3시 경내 특설무대서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제10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경내 특설무대에서 연다. '당진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1부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성금 및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된다. 이어 2부 본식, 3부 호수음악제가 열린다. 호수음악제에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성은, 바리톤 박성준, 소프라노 김나희, 가수 진수영·우연이, 밴드 사랑과평화 등이 무대에 오른다.

보덕사 주지 정안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당진 시민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음악을 통해 소통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당진시가 더욱 화합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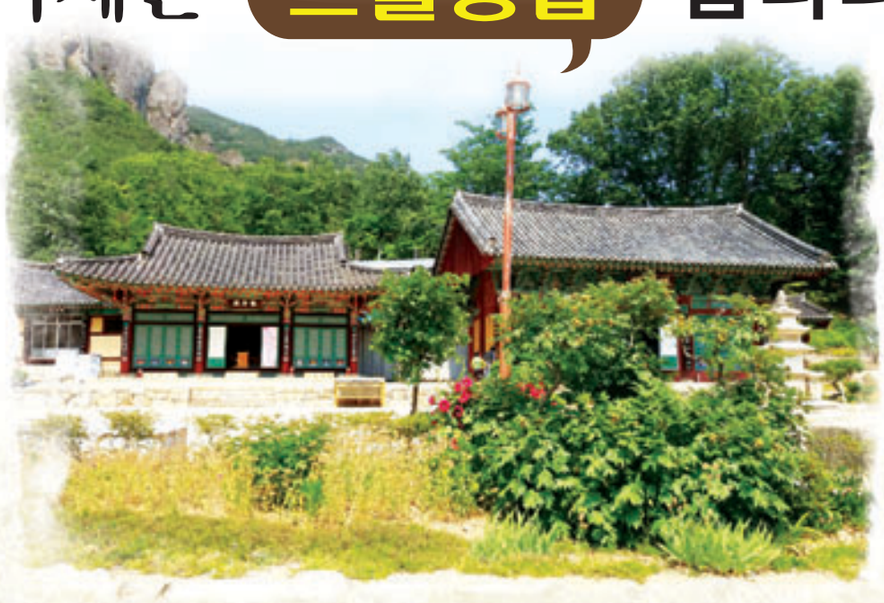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 010-9471-2026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